



MONTHLY **KOFA**

코파의

정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2026년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8**
2026/03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대한항공,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자카르타 노선 ‘주 7회→2회’ 대폭 감편 검토

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 일환... 4월 29일~5월 31일 화·목 주 2회만 운항 검토 티웨이항공 진입 따른 슬롯 조정 여파... 대한항공 “6월 정상화 추진 중” 아시아나 정상운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운항 편수가 일시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 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사는 오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자카르타 왕복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기존 주 7회(매일 운항)에서 주 2회로 축소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대한항공의 자카르타 노선은 화요일과 목요일, 단 이틀만 운항하게 된다.

‘합병 시정 조치’ 직격탄... 한 달간 운항률 70% 이상 급감 이번 운항 축소는 단순한 비수기 감편이 아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쟁 제한 시정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국 경쟁 당국은 양사의 결합으로 인해 독점이 우려되는 일부 노선에 대해 슬롯(Slot·항공기 이착륙 횟수) 반납 및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항 횟수는 줄어들지만, 기존에 배정된 화요일과 목요일의 출발 및 도착 시간은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갑작스러운 운항 축소로 인해 해당 기간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감편 대상 날짜에 이미 예약 및 발권을 마친 고객들을 대

상으로 오는 2026년 2월 11일부터 대체 항공편 안내 등 재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가루다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진입과 맞물린 ‘요일 나누기’... LCC 반사이익 업계에서는 이번 스케줄 변경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의 자카르타 노선 진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4월 29일부터 티웨이항공이 월, 수, 금, 토, 일요일 주 5회 운항 스케줄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티웨이항공이 운항하지 않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대한항공이 운항할 수 있도록 슬롯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독과점 해소를 위해 국적 대형 항공사(FSC)가 점유하던 알짜 노선의 운수권 일부를 LCC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6월부터 정상화 추진 중이나 확정 아냐”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사 관계자는 한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 제한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4월 29일부터 5월 말까지 운항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운항 횟수나 출도착 스케줄 등은 규제 당국 및 공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이후의 항공편 일정 역시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하반기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획 중인 승객들은 향후 공지될 스케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양대 항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노선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스케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사 측의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서 원화로 바로 QR 결제... 올해 4월부터 시행

올해 4월부터 한국 여행객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QR코드(QRIS) 결제가 가능한 현지 통화 직거래 방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국 방문객은 상대방 국가명점에서 자신의 모바일 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전과 수수료 등 부담 낮출 수 있게 된다.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와 결합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 이 제도는 미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끼리 곧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관광과 교역 등 실물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5일 양국 간 QR 기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페리 와르지오(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 총재가 통화스왑 계약 연장 합의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반 지급 서비스 연계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QR 지급서비스 연계는 양 중앙은행이 2024년 7월 양국 간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추진해 온 결과이다. 한은은 추후 다른 아세안 국가로도 국가 간 QR기반 지급 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2026년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인 총연합회' 발족 필요성 제기 및 공감대 형성 최태립 부회장, 한인회관 건립 기금 10억 루피아 현장 즉석 기부 정관 개정안 가결 및 한인회 통합 플랫폼 구축 보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2026년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사진=한인뉴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5일, 쉐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시티 호텔에서 '2026년도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동포 사회의 도약과 대통합을 위한 핵심 의안들을 확정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재적 임원 144명 중 현장 참석 43명과 위임장 제출 53명 등 총 96명의 임원 참여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앞서 김종현 한인회장은 "이번 총회가 한인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현 수석부회장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한층 더 높은 열정으로 교민 사회에 먼저 다가가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내외 홍보와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강조한 양태화 수석부회장은 "올 상반기 내에 한인회 통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실무적인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이정호 수석부회장은 대외협력과 각종 행사를 위해 헌신한 임원진과 사무국, 청년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지완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 한글날 성과 등을 공유하며 올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배 이사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했다. 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내 여러 한인 단체의 역할을 결집하고 대외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인도네시아 한인 총연합회' 발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원들은 급변하는 현지 환경 속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일원화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시간을 두고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방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진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는 한인회관 건립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이 있었다. 기존의 엄격한 기금 사용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이사회 결의 시 타 용도 사용 가능)이 가결됐다. 이어 최태립 부회장이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10억 루피아를 기부했다. 이는 한인회관 건립이라는 숙원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공동체를

위한 솔선수범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건립 논의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교민 사회의 편의를 혁신할 한인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진행 현황도 상세히 공개됐다. 보고를 맡은 한인뉴스 편집장은 실무 검토를 거쳐 확정된 6대 핵심 기능을 발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실시간 안전 알림, 지역별 분권형 커뮤니티, 한인업체 디렉토리, AI 챗봇 기반의 디지털 중재 및 행정 상담 센터 등을 포함하며, 1분기 내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한인회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허브가 될 전망이다. 한인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동포 사회의 화합과 차세대

육성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한인 청소년 기업 견학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인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자선 골프대회와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그린런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임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인도네시아 한인회 임원 친선 골프와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한인회 송년의 밤을 통해 교민 사회의 유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산하 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전문화된다. 한인뉴스는 정보 전달의 적시성을 높여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동포들의 정서적 함양에 앞장선다. 한인청년회는 차세대 네

트워크 활성화를, 한인문화연구원원은 열린강좌와 북클럽 등을 통해 양국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의 가교 역할을 지속한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후, 현장에서는 순환평 고문에 대한 깜짝 전수식이 마련됐다. 제 19회 세계한인의 날 수상자로 선정된 손 고문은 지난 대사관 신년인사회 당시 고국 체류 일정으로 표창을 직접 받지 못했으나, 이번 총회에서 동료 임원들이 준비한 특별한 축하의 순서를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김종현 회장은 "동포사회의 참여와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 분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동단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모든 의사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기념사진 촬영 후 오찬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졌다. [한인뉴스/자카르카경제신문]

한국-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 5년 연장... 10.7兆 규모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0조 7000억원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오는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5일 원화-인도네시아 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오는 2031년 3월 5일까지 5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 하는 계약을 말한다. 스와프 규모는 기존과 같은 원화 10조 7000억원, 115조 루피아다.



▲한국은행 본부 전경. /조선DB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4년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해 2017년과 2020년, 2023년에 만기를 연장한 바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본·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호주·중국·캐나다·튀르키예·말레이시

아·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중·일) 등 모두 10곳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 당국은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다"면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수출입 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해 역내 교역 촉진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T A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세계의 관심이 미국에 쏠린 가운데...인도네시아 내 미 기업들의 행보는?



▲아마존 웹 서비스 (사진=자카르타포스트/Amazon Web Services)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미국의 정치·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이슈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며 자본과 기술, 혁신 역량을 통해 경제 및 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2024년 미-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의 ‘인도네시아를 위한 미국 기업(BISA)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민간 부문의 활동이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 논의는 순수하게 기업 활동과 그 지역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 지정학적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19세기부터 이어진 협력, ‘골든 2045’와 맞물린 투자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맺어온 주요 개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의 ‘골든 2045’ 비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2020년 이후 미국 기업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규모는

148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2분기에만 15억 5천만 달러가 투자됐다. 투자 지역도 중부 파푸아에서 동부 자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미국 기업들의 기여는 단순한 자본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이라는 인도네시아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 전반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역량 강화하는 효과가 금액 이상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

여러 미국 기업들이 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 청년, 교사, 기업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글과 그 자회사 유튜브는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340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을 교육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가뿌라 디지털(Gapura Digital)’은 2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고 사업 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다. 또 ‘방킷 브르사 마 A(Bangkit Bersama A)’ 프로그램에서는 구글이 여러 부처 및 파트너와 협력해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에 나섰다. 지금까지 30만 명의 학생, 교육자, 개발자 및 전문가에게 인공지능(AI) 핵심 역량을 교육했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이후 1만 6,500명 이상이 관련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중 약 1만 4천명은 클라우드 기반 풀스택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는 13개 대학 학생들로, AI 및 클라우드 기술 역량 강화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의 산업 분야에서는 넷플릭스(Netflix)가 족자-넷팩 아시아 영화제(Jogja-NETPACK Asian Film Festival)와 협력해 ‘릴 라이프 필름 캠프(Reel Life Film Camp)’를 운영했다. 600명 이상의 청년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75명은 후반작업과 음향디자인 등 창작·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멘토링을 받았다. 이는 젊은 창작자들을 산업 전문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 농업 지원

농업 부문에서는 코르테바(Corteva)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Mondelz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기업들이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지원하며 뿌라보 워 대통령의 우선 과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코르테바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말랑 지역의 취약 가정을 위해 5만 개의 영양 식사 패키지를 배포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9만4천명 이상의 농가가

개방수분 품종(OPV)에서 하이브리드 옥수수 종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했다. 농업기술 교육과 종자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농민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2013년부터 ‘코코아 라이프(Cocoa Lif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제,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람뽕, 중부·남부·남동 술라웨시 등지의 카카오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적,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3만 2,500명 이상의 등록 농민을 지원했으며, 310개 이상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700만 그루

이상의 코코아 묘목을 보급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람 중심의 협력 플랫폼 BISA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공통적으로 상업적 활동과 함께 실질적인 인적·사회적 성과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내 활동은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 기술 역량 개발, 지속가능성, 장기적 번영을 지향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에 둔 접근을 통해 미국 민간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골든 2045’ 비전 달성을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형태로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같은 발음 다른 뜻



- 고무줄을 늘이다.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리다.
- 목걸이를 걸다.
목거리가 나 몹시 아프다.
※목거리 : 목이 붓고 아픈 병.
- 겁이 나서 마음을 졸이다.
엄마가 생선을 조리다.
- 여러 날을 주리다.(굶다)
경비를 줄이다.
- 김장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
오래 앉아 다리가 저리다.
- 똥이 발에 있으면 거름이 된다.
난 걸음이 참 빨라.
- 옷을 다리미로 다리다.
엄마가 약을 달이다.
- 작업을 마치다.
답을 맞히다.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우산을 받치다.
자동차에 받치다.
-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 나이가 지긋이 든 신사.
태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 술에 쌀을 안치다.
윗자리에 앉히다.
(백문식, (우리말 표준발음법)에서 발체)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2026년 “에이스 에너지” 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최적 효과를 보장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목표 달성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인도네시아 제조업, 2026년 새해 ‘청신호’ ... 1월 PMI 52.6으로 확장세 가속

내수 시장 활성화가 성장 견인... 생산량 및 신규 주문 증가세 뚜렷 기업 신뢰도 1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으나, 고용 감소는 과제로 남아



▲인도네시아 제조 공장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기가 뚜렷한 확장 국면에 진입하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수 시장의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제조업 실적이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다.

2일(현지시간)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S&P 글로벌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2025년 12월의 51.2보다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이로써 기준점인 50을 상회하며 안정적인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PMI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수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생산량 확대와 신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았다. 특히 기업들이 2026년 경제 전망을 낙관하며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우사마 바티(Usamah Bhatti) 이

코노미스트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제가 1월 들어 소폭 개선되었으며, 이는 생산량과 신규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규 수출 주문이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확

장은 전적으로 내수 경제 활동의 증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시장이 현재 인도네시아 제조업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지 기업들은 향후 수개월간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구매 활동을 확대하고 재고를 비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미래 전망 지표에도 반영되었다. 향후 12개월간의 생산량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는 전월 대비 상승하여 최근 10개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가격 및 비용 측면에서는

일부 불안 요인이 감지됐다. 공급망 차질과 더불어 원자재 유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상 악화 요인이 겹치면서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고 역사적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1월 중 비용 부담의 일부를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제조업 경기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202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

소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3개월 연속 미처리 업무가 누적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충원에 신중을 기하고 있거나, 숙련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2026년 초반 강력한 출발을 알렸지만, 수출 부진의 장기화와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내수 중심의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지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인포스트)

프라보워, 기업인들에 경고 “부당 이득, 경제 성장 저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13일 “관료들과의 유착을 통해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늘리는 기업인들을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포럼(Indonesia Economic Outlook)’에서 “부패는 여전히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여러 저명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오랜 지인이었다면서, 그들에게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려 하기보다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연설하는 프라보워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실]

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기업은 이미 크고 부유하다. 그냥 규정을 따르라.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때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규정을 교묘히 피해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경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성장은 결코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다”며 “위법

행위가 민간 부문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며, 관료 조직 내부 요소들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보고르의 개인 자택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재벌 기업인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이 모임에는 주요 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바리토 퍼시픽 그룹의 프라요고 팡에스투, 살림 그룹의 안토니 살림, 시나르마스 그룹의 프랭키 위자야, 아다로 에너지의 보이 토히르, 아궁 세다유 그룹의 수기안토 쿠수마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인니 대통령, 재계와 일자리 · 기업환경 개선 논의...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구상도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서부 자바 보고르 함발랑 사저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인들과 이틀 연속 회동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1일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9일 저녁 인도네시아경영협회(Apindo) 소속 기업인 20여 명과 만났고 이어 다음 날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도 수시간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경영자협회 자문위원회 소프잔 와난디 위원장은 11일 자카르타포

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계는 매년 약 300만 명씩 증가하는 국내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특히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 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원자재 수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확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도 논의됐다. 경영자협회는 우선 정부에 전달할 “3~5개 우선 과제 목록”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완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값싼 수입 완제품이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잔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협회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프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을 후속 조치 담당 연락 창구로 지정했다. 프라스띠오 장관은 이번 회동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Indonesia Inc.)’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 구상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하며,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탐욕 경제’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발전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자협회와의 회동 다음 날, 프라보워는 5대 기업 그룹 총수들과도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서도 ‘인도

네시아 주식회사’ 구상과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재계의 확고한 협력 의지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특히 실물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중소기업(MSME)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자협회 신따 캄다니 회장은 11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협회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정신’을 장려했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협력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규제 복잡성, 높은 비용 구조, 글로벌 시장 변화 등을 기업이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법이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국영기업(BUMN)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를 통한 국영기업의 참여가 민간 부문의 역할을 대

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부펀드 다난타라 자금 60억 달러를 투입해 국영 섬유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형 민간 섬유업체 스텍스(Sritex)의 파산 등 무역 및 섬유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설정됐다. 이어 2월에는 동부자바 말랑에 5.6헥타르 규모의 통합 가공류 다운스트림 시설을 개장하며 가공류 산업에도 진출했다. 국영식품지주회사 ID푸드(PT Rajawali Nusantara Indonesia) 역시 남술라웨시, 동칼리만탄, 람땡, 고론말로, 서누사 가라 등에 총 20조 루피아 규모의 유사 시설을 건설 중이다. 데니 연구원은 “소수 기업 집단만을 우대하는 국가 중심적 접근 방식은 시장 포용성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독재자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정부-소수 대기업 협력 모델이 시행돼 노동집약 산업 중심의 고성장을 이뤘지만, 1990년대 후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경제 ‘시험대’ ... 개혁 드라이브 속 ‘빨간불’

인도네시아 경제가 개혁 의지와 시장 불안이 교차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부패 척결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등급 · 환율 · 증시를 둘러싼 경고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행보는 이러한 복합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재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는 고용 창출과 실물경제 기여 투자를 주문하며 민간 협력 기반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단순한 이익 확대가 아니라 국가경제 파급 효과가 큰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부-민간 협

력을 전제로 한 이른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Indonesia Incorporated)’ 구상도 재확인했다. **관료조직 · 자본시장 동시 정비** 개혁의 칼날은 관료조직과 자본시장으로도 향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 친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대통령특사는 관료조직 내 이른바 ‘부패한 관리(rotten eggs)’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위 공직자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 개혁 방침을 내세우며, 감독기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 해임, 대규모 벌금, 자본시장 조작 단속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환경 파괴 기업과 열리

트 특권 범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증시 변동성과 투자자 신뢰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외국 개입론 제기...경제정책 방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경제정책 비판 여론의 배경에 외국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무상급식 · 식량안보 정책과 관련해 해외 언론과 일부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경제주권을 강조했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유지하는 실용 노선도 병행했다. **금융시장 ‘경고 신호’ 현실화** 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증

시 투망성 우려 제기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커졌고,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만7,000선에 근접했다.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며 재정 부담과 정책 일관성 리스크를 지적했다. 재정 여건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2%로 법정 상한선(3%)에 근접했고, 세수는 목표에 못 미쳤다. 무상급식 · 공공주택 등 대형 복지 사업과 국부펀드 관련 잠재 부채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신용평가사들은 정책 예측 가능성 약화 역시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지목한다.

정부 ‘펀더멘털 견조’ 반박 정부는 위기론을 일축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 5.11%, 은행대출 약 10% 증가, 실업률 하락, 대외 부채 GDP 대비 30% 미만 등을 근거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입장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9년까지 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체력(strength)’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장을 유지가 곧 투자 질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등급 방어와 시장 신뢰 회복이 단기 핵심 과제라며, 향후 신용평가 결과와 자본 흐름이 경제 방향을 가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도네시아, 새 이민 정책 '재외동포'와 '골든 비자' 본격 가동... "대상·목적 달라"

이민·교정청, 두 제도의 차이점 상세 설명...
GCI는 '혈통과 유대', 골든 비자는 '투자'에 방점
GCI는 영구 체류권 부여·5년마다 신고제...
골든 비자는 최대 10년 체류·고액 투자 필수

인도네시아 이민·교정청(Kemenimipras) 산하 이민총국이 최근 도입된 '글로벌 시티즌 오브 인도네시아(Global Citizen of Indonesia, 이하 GCI)' 재외동포 정책과 기존의 '골든 비자(Golden Visa)' 정책 간의 명확한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제도 모두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 내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도입 취지와 대상, 운영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총국 직무대행(PH) 총국장은 2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두 비자 정책은 본질적으로 메커니즘과 대상(주체),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GCI: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혈통의 유대 강화

2026년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GCI는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재외동포)와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 율디 총국장은 "GCI는 전(前) 인도네시아 국민(WNI)과 그 가족,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고국인 인도네시아에 다시 정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GCI 비자의 발급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전 인도네시아 국민(E32E) △특수 전문성을 보유한 전 인도네시아인(E32F) △2촌 이내의 전 인도네시아인 후손(E32G) △특수 전문성을 가진 전 인도네시아인 후손(E32H)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 관계를 증시하여 △인도네시아의 합법적 배우자인 외국인(E31A) △기존 ITAS/ITAP 소지자의 배우자(E31B)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합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E31C)에게도 면호를 개방했다.

가장 큰 특징은 체류 기간이다. 최장 10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골든 비자와 달리, GCI는 발급 즉시 영구적인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소지자는 5년마다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골든 비자: 경제 성장을 위한 고액 투자 유치

반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골든 비자는 철저히 '경제적 기여'와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골든 비자의 유형은 개인 투자자, 법인 투자자, 세컨드 홈(Second Home) 신청자, 글로벌 인재, 세계적 명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체류 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부여되며,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요건은 GCI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5년 체류를 위해서는 미화 250만 달러, 10년 체류를 위해서는 미화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모기업의 임원(이사·감사 등)이 체류하기 위해 2,500만 달러(5년)에서 최대 5,000만 달러(10년)라는 천문

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국내나 상장 기업 주식,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5년 체류 시 35만 달러, 10년 체류 시 7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 요건과 비금전적 기여의 균형

이민총국은 두 제도의 세부 요건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GCI 제도의 경우,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부담은 골든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GCI 신청자는 국채, 주식, 뮤추얼 펀드, 부동산 등 금융상품에 대한 경미한 수준의 투자 약정이거나, 월 최소 1,500달러(또는 연 15,000달러) 수준의 소득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전략적 전문성' 경로를 통해 GCI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투자 약정 없이 소득 증빙과 중앙정부의 보증이 포함된 초청장 제출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율디 총국장은 이번 성명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GCI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세계 시민들과의 유대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같은 '비금전적 가치'가 인도네시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민 정책을 다각화함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인적·문화적 교류 또한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대미 팜유 무관세 확보... 섬유 및 광물 품목은 제한적



▲수마트라 잠비 지방의 팜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인하하는 무역 협의를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최대 수출 품목인 팜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에 대해 관세 면제를 확보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워싱턴에서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다르프 경제 조정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명했으며,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성사됐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팜유는 이번 협정에서 관세 면제를 받았다. 19% 관세율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베트남은 20%로 약간 높다.

이번 합의는 올해 초부터 부진했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MSCI는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증시를 '프런티어 마켓'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요세 리잘 다루리 소장은 이번 미국과 인도네시아 합의를 추가 개혁의 계기로 활용할 경우 투자자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에 한 약속을 다자화하고 이를 규제 완화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산 섬유 제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쿼터(quota) 체계에 따라 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쿼터는 면화 및 인조섬유 등 미국산 원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미국이 핵원자로 개발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비경제적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키려던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현지부품사용의무(로컬 콘텐츠) 규정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의료기기와의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제품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자국 관할 내에서 미국의 무역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외국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협정은 양측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뒤 90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번 합의 서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뿌라보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인도네시아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향한 협정 이행'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 안보와 성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인도네시아와 미국 기업들은 총 384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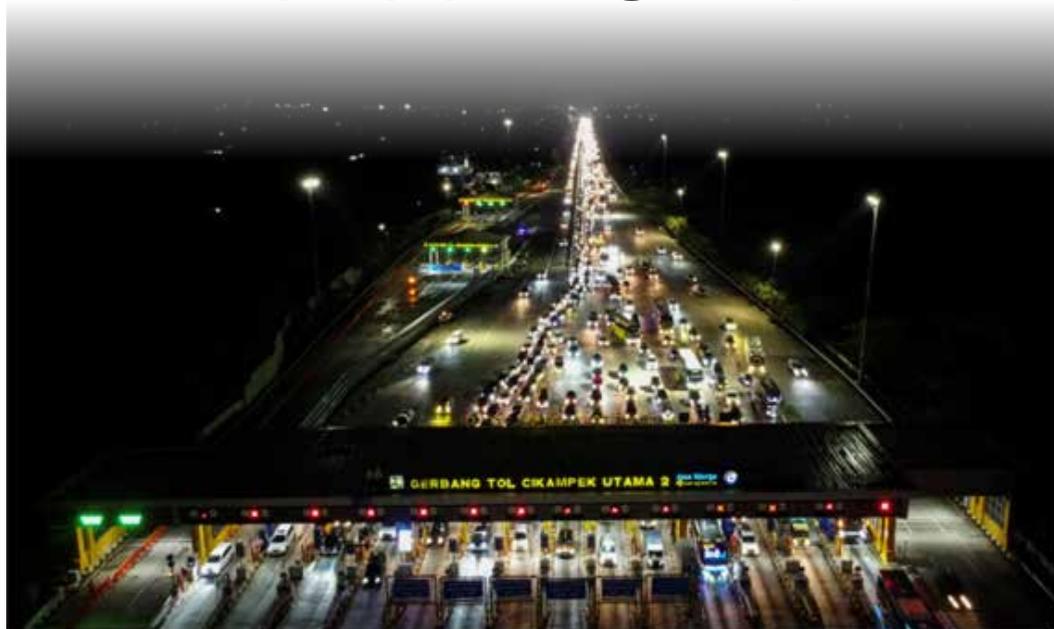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인니 올해 르바란 1억 4천만 대이동 예상... 무료 무딕으로 교통난 완화



▲2025년 3월 28일, 수백만 대의 무딕 차량 행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idul Fitri)을 앞두고 대규모 무딕(mudik, 귀향) 인파에 대비해 무료 교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올해 무료 무딕 프로그램을 통해 버스 401대를 34개 지방 목적지에 투입하고, 장거리 선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5만 장의 무료 일반석 승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바 지역에서는 2만 8,182명을 목표로 무료 열차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귀향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관은 무료 무딕 외에도 성수기 이동 수요에 맞춰 각종 운임 할인 정책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부 최신 조사에 따르면 오는 3월 이돌 피뜨리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1억 4,39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는 지난해 1억 5,460만 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역대급 규모다.

이동 수단 가운데는 자가용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버스, 열차, 선박 등 공공 교통수단을 통해 일부 수요를 분산시키고, 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카르타 인접 지역이자 인구 약 5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부자바가 주요 교통 병목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목됐다. 두디 장관은 이를 “국가 이동의 핵심 허브”로 규정하고, 주말 동안 데디 물라디 주지사를 만나 간선도로와 상습 정체 구간 관리에 대한 주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통부는 비공식 노점시장과 도로변 장애물 단속, 관광지 질서 정비, 철도 건널목 관리 강화, 간선도로 및 유료도로의 교통공학 적 운영 강화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FWA)도 시

행한다. 공무원과 민간 부문 근로자가 성수기 이동 시점을 분산하도록 3월 16일, 17일, 25일, 26일, 27일에 유연근무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귀향·귀경 피크 이전과 이후로 이동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이돌피뜨리는 정부와 이슬람 단체 간 이스밧(isbat, 공식 확정)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3월 21~22일경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TR, 인도네시아 수출 필수 ‘SNI 인증’ 획득 돕는다 공인인증기관 IGS와 협약... 소비재·완구류 수출 필수 인증 협력

KTR이 인도네시아 수출에 필수적인 ‘SNI 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제품인증기관 IGS(Integrita Global Certificate)와 소비재·완구류 등 분야의 SNI 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R과 IGS의 협약은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 품목 확대 정책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SNI 인증은 인도네시아 자국 내 소비자 보호 및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필수 인증제도로 인증 대상 품목 수출기업은 인도네시아 제품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 획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KTR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완구류·소비재를 중심으로 SNI 인증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은 현지 인증기관 섭외와 의뢰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 및 언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IGS는 인도네시아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소비재·완구류 중



▲에코 워보워 IGS 창립자, 응아디만 사스트로 IGS 대표, 김현철 KTR 원장(왼쪽부터)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 SNI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소비재·완구류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SNI 인증에 필요한 제품시험과 적합성 검토를 더욱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또 인도네시아 규제정보교류 등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TR은 55개국 260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전 세계에 걸쳐 국내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원을 두고 전기전자·식품·화장품·산업기자재·철강·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필수 인증 획득을 현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수출기업의 유망시장 중 한 곳”이라며 “우수한 국내 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DNET korea]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원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티웨이항공, 4월 29일부터 ‘인천~자카르타’ 하늘 길 주 5회 연다

주 5회(월·수·금·토·일) 운항 확정...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따른 노선 이관 조치 3만 5천 동포사회 “고운임 해소 기대” 환영... KTO 자카르타 지사, 관광객 유치 박차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최초로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잇는 정기편 운항을 4월 29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대형항공사(FSC)가 독점해 온 해당 노선에 LCC가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만성적인 고운임 구조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4월 29일부터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주 5회(월·수·금·토·일) 신규 취항한다고 10일 공식 밝혔다. 이번 취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 조치에 따라, 재분배된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이 이관받아 성사됐다.

인천 오후 출발·오전 도착 ‘알짜 스케줄’ ... 비즈니스·관광 수요 동시 공략

티웨이항공이 공개한 운항 스케줄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항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하여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 10분에 도착한다. 자카르타 출항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자카르타를 출발해 다음 날 오전 7시 5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번 노선 취항이 단순한 여객 운송을 넘어, 동남아시아 핵심 거점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한

▶ 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운항 스케줄(현지 시각 기준(스케줄 변동가능))

일정	노선	편명	출발	도착	요일
2026년 4월 29일 - 10월 24일	인천-자카르타	TW 155	15:10	20:10	월·수·금·토·일
	자카르타-인천	TW 156	21:50	07:05 (+1)	

▲ 티웨이항공은 4월 29일부터 인천 자카르타 왕복 노선을 운항한다.

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비즈니스 시티’으로 꼽힌다.

또한, 자카르타는 발리, 족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내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관광 수요 또한 풍부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스케줄 오픈을 통해 상용 수요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고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운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3만 5천 동포사회 “독과점 깨졌다” 환영... 양국 교류 활성화 기폭제

이번 취항 소식에 인도네시아 현지 한인 사회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3만 5천여 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등 대형 항공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성수기 좌석난과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 운임이 동포들과 기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자카르타 현지의 한 동포는

“LCC 진입은 동포 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며 “티웨이항공의 취항으로 실질적인 항공료 인하 효과와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관광’ 붐 조성...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유치 총력전
항공 노선 확대에 발맞춰 한국관광공사(KTO) 자카르타

지사 또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 방한 관광객 순위 9위,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KTO 자카르타 지사는 2025년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목표를 36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27만 8,575명) 실적은 물론, 2024년 유치 실적(33만 6,185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를 위해 공사는 가족 여행, 스포츠, 의료·웰니스,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다각별 맞춤형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신규 취항이 연간 35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방한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인적 교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티웨이항공의 자카르타 노선 진입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LCC의 운영 능력을 검증받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서비스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당국, 라마단 기간 유흥업소 영업 중단 명령

자카르타 당국은 이슬람 성월 라마단 기간 동안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바(bar) 등 성인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새로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스탬페스(사우나), 마사지 업소, 성인 전용 게임장(수동·전자식 포함) 등은 라마단 시작 하루 전부터 금식월 종료를 축하하는 명절 이돌피트리(르바란) 둘째 날 다음 날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4성급 및 5성급 호텔 내 시설과 일부 지정 상업지구에 위치한 업소는 예외가 적용된

다. 단, 주거지역, 종교시설, 학교, 병원 인근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인도네시아에서 2026년 라마단은 2월 19일부터 시작해 3월 19일 전후까지 1달간 계속되며,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돌피트리는 3월 20일 또는 21일로 예상된다.

안디카 빠르마따 자카르타 관광·창조경제국장은 라마단 기간 영업을 허용된 업소도 운영 시간이 제한되며, 현지 시간 기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 종료 최소 1시간 전에 ‘클로즈드 빌(closed bill)’로 불리는 정산 절차를 완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라마단 첫날, 꾸란 계시를 기념하는 ‘누줄룰 꾸란(Nuzulul Quran)의 밤’, 이돌피트리 예배 전야 및 이돌피트리 1·2일차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는 추가적인 영업 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주정부는 또한 음란물·선정적 콘텐츠 전시, 도박 및 마약 조장 행위, 공공질서 교란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자카르타는 매년 라마단 기간이 되면 영업시간 조정 등 운영 제한을 시행해 왔다. 무슬림들은 이 기간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행사안내] 함께하는 무비힐링 '보스' 무료 상영회 개최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함께하는 무비힐링' 무료 영화 상영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오는 3월 7일(토) 오후 2시, CGV Pacific Place 6층 상영관에서 교민 및 현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영화 상영회 '함께하는 무비힐링'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인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작은 유쾌한 스토리와 탄탄한 연출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보스'로,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행사는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관람객들에게는 팝콘과 음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번 영

화 상영회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을 제공하고, 교민 사회가 함께 웃고 공감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정제의 간사(0811-8010-1004)에게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5FssNb6jU7dqwmZ8>
한편,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동포 사회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평통=데일리인도네시아]

운동화인듯 구두인듯, 요즘 대세는 '구동화'

건강 중시 흐름에 신발도 편안함 중시
지난달 무신사 내 검색량 375% 늘어

"평소 구두를 좋아하지만, 불편해서 데일리로는 못 신었습니다. 구두 대신 신어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게 신기하네요." (뉴발란스 1906LAI 상품 후기)

단정한 디자인에 운동화의 편안함을 더한 '구동화'가 주목받고 있다. 구동화는 클래식한 구두의 외형과 운동화의 기능성 아웃솔(밑창)을 더한 제품이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이 신발 시장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뷰처에 따르면 국내 정장 구두(formal shoes) 시장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10.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 시장 규모는 4억91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통적인 구두보다는 편안함을 강화한 제품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발란스, 반스, 나이키 등 주



▲반스 스케이트 로퍼 [무신사 애플리케이션 캡처]

요 스포츠·캐주얼 브랜드들도 잇달아 구동화 스타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구동화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반스의 '스케이트 로퍼'는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전 사이즈가 동나며, 지난달 16일 재입고됐다. 1월까지 누적 6000만개가 판매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뉴발란스 구동화 모델인 '1906L'도 연일 매진 행렬이다. 기존 1906 스니커즈를 페니 로퍼 스타일로 재해석해 격조와 착용감을 한 번

에 잡았다는 평이다. 나이키도 지난해 10월 구동화 경쟁에 참전했다. 에어맥스 아웃솔에 구두 외형을 적용한 '에어맥스 페노메나' 모델을 선보이면서다.

플랫폼에서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무신사 내 구동화 검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5% 급증했다.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닥터마틴 '리더 와이오밍 리더 유틸리티'의 지난달 거래량은 전월 대비 6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나이키 에어맥스 페노메나도 전월 대비 92% 늘었다. 뉴발란스 1906L 모델은 5일 기준 인기 순위 32위에 오르며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신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구동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늘어난 수요에 브랜드들도 기능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신제품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무봉제 스니커로 제작된 뉴발란스 9060 공개 바느질 없이 완성됐다.

뉴발란스가 9060의 새로운 변주 모델을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 메시와 스웨이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무봉제 방식의 합성 오버레이가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뉴발란스가 최근 1906과 1890 등 주요 실루엣에서 이어오고 있는 기술적 리프레시 흐름으로 예상된다. 스니커는 뉴발란스의 아이코닉



▲New Balance

한 뉴트럴 톤을 기반으로 선보여졌다. 전체적으로 올화이트 컬러로 감싸졌으며, 곳곳에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그레이 포인

트가 더해져 다양한 스타일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인상으로 완성됐다.

또한 두툼한 하이브리드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간결해진 구조와 매끈한 표면 처리로 기존 레트로 러너 무드와는 또 다른 현대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뉴발란스 9060 스니커는 2026년 중 뉴발란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키코 코스타디노브 x 아시스 ‘US7-S 젤-키네틱 플루언트’ 공개 믿고 보는 ‘키코’ 맛 아시스.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아시스와 함께한 새로운 스니커 ‘US7-S 젤-키네틱 플루언트’를 공개했다.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아카이브 러닝 슈즈의 부활을 넘어 레트로 메시 러너 트렌드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인물답게, 이번 모델 역시 패턴과 구조를 전면에 내세워 스니커헤드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스니커는 블랙/그레이, 브라운/옐로, 그린/옐로 총 세 가지로 전개됐다. 착용 시에도 그래픽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각 스니커에는 비교적 차분한 베이스 컬러 위에 대비되는 패턴과 포인트 컬러가 배치됐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스니커 전반에 적용된 서클 패턴 그래픽이다. 어퍼, 아이

렛, 토, 쿼터 패널, 그리고 미드솔 키네틱 쿠셔닝 주변에는 수백 개의 크기와 톤이 다른 원형 패턴이 확장 적용됐으며, 언더레이에는 타탄 패턴을 연상시키는 조직감 있는 프린트가 더해졌다. 해당 스니커의 실루엣 자체는 비교적 정제된 구성을 유지했으나, 패턴 레이어링을 통해 시각적 밀도를 끌어올렸다. 메시와 합성 레더라는 익숙한 소재 조합을 유지하면서도, 표면에서 느껴지는 디테일을 극대화해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실험성을 드러냈다. 키코 코스타디노브 x 아시스 US7-S 젤-키네틱 플루언트는 2월 19일, 아시스 공식 웹사이트 및 일부 리테일러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JJ자운드 x 뉴발란스 475 ‘블랙/화이트’ 티저 공개 ‘JJ뉴발란스’는 언제나 옳다.

JJ자운드와 뉴발란스가 협업한 새로운 스니커 475 ‘블랙/화이트’ 티저가 공개됐다. 이번 스니커는 뉴발란스의 아카이브 러닝 실루엣에 JJ자운드 특유의 절제된 디자인이 결합돼 미니멀한 무드로 제작됐다. 스니커의 어퍼는 블랙 메시 소재로 감싸졌으며, 그 위는 스웨이드 오버레이로 뒤덮였다. 힐에는 JJ자운드 로고가 더해져 기존 모델과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드러냈으며, 아웃솔에는 어퍼와 동일한 블랙 검술이 적용돼 균형감있게 완성됐다. JJ자운드 x 뉴발란스 475 ‘블랙/화이트’는 2026년 봄, 여름



중 출시될 예정이며, 출시 세부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HYPEBEAST]

나이키 에어 폼포짓 원 ‘플로럴’ 재출시한다



나이키의 에어 폼포짓 원 ‘플로럴’ 컬러웨이가 재출시된다. 해당 스니커는 지난 2019년 여성 전용으로 처음 발매된 바 있으며, 2026년 홀리데이 시즌 출시가 예정됐다. 기존 사양을 그대로 유지해 선보인다. 스니커는 블랙 폼포짓 셸을 바탕으로 레드, 핑크, 오렌지 컬러의 플라워 그래픽과 그린 톤의 위사귀 패턴이 어퍼 전반에 적용됐다. 아이스테이와 슈레이스 주변

에는 블랙 누벅 오버레이를 더해 매끈한 질감을 강조했고, 메탈릭 골드 스우시 레이스 듀브레와 힐에 자수 처리된 1센트 로고가 포인트로 더해졌다. 미드풋에는 카본 파이버 상크 플레이트를 적용했으며, 블랙 고무 아웃솔로 마감했다. 해당 스니커의 정확한 발매 일정과 가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HYPEBEAST]

자크뮈스 x 나이키 ‘문 슈즈’ 신규 컬러 공개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자크뮈스 x 나이키 ‘문 슈즈’가 2026년 봄 시즌을 맞아 새로운 컬러로 돌아왔다. 이번 스니커는 지난해 공개와 동시에 품절 대란을 일으킨 협업 모델 ‘문 슈즈’를 기반으로, 이번 시즌에는 한층 밝고 부드러운 팔레트가 적용돼 또한 한 번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이번 시즌에는 소프트 핏을 비롯해 파우나 브라운, 알루미늄 핑크 등 봄 시즌에 어울리는 라이트 톤 컬러가 추가됐다. 기존의 날렵한 실루엣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부드러운 분위



기를 강조했다며, 현재 자크뮈스 채널을 통해 얼리 액세스 알림이 진행 중이다. ‘문 슈즈’라는 이름은 실제 우주와는 무관하지만, 1969년 달 착륙 당시 우주비행사의 발자국을 연상시키는 트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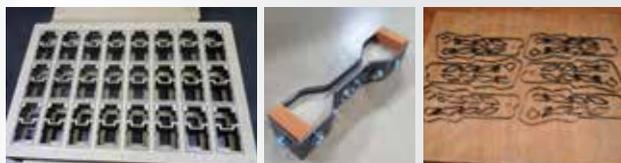
화 아웃솔 패턴에서 비롯된 모델이다. 지난 2025년 가을 시즌, 자크뮈스는 미니멀한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과 나일론 소재를 결합한 ‘문 슈즈’를 블랙, 레드, 세일/네이비 컬러로 선보이며 슬립 스니커 트렌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자크뮈스 x 나이키 ‘문 슈즈’는 2026년 중 자크뮈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자세한 출시 일정은 추후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틈스 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이대로 가면 파국” 패션산업 탈탄소, 1.5°C 궤도에서 크게 이탈했다

카스케일, ‘2026년 의류, 신발 및 섬유산업의 탈탄소화 진행 상황’ 보고서



▲석탄이 패션산업 에너지 소비량 31%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2%에 그쳤다. 사진=게티이미지

글로벌 패션 공급망의 탈탄소 전환이 속도와 규모 모두에서 목표 궤도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패션산업의 에너지·배출 구조는 여전히 석탄과 화석연료 중심이며 재생에너지 확산이 정체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기관 카스케일(Cascale)은 최근 ‘2026년 의류, 신발 및 섬유산업의 탈탄소화 진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반적인 탈탄소화

진전은 여전히 더디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스케일의 새로운 유효 에너지 탄소 집약도(EECI) 지표를 사용하여 해당 산업이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탈탄소화하고 있는지를 특히 스코프1·2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 섬유·의류·신발 산업의 환경·사회 영향을 평가·개선하는 글로벌 표준 도구 ‘잇(Higg)’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EECI 성능이 미미하게 개선되었을 뿐이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석탄 사용은 여전히 탈탄소 전환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석탄은 전체 산업 에

너지 소비량의 31%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다. 2단계 에너지원에서는 석탄이 가장 큰 연료원으로, 전 세계 에너지 구성의 40%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정체되어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산업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며, 더 많은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배출량은 특정 시설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규모 에너지 집약적 시설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획일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특정 시설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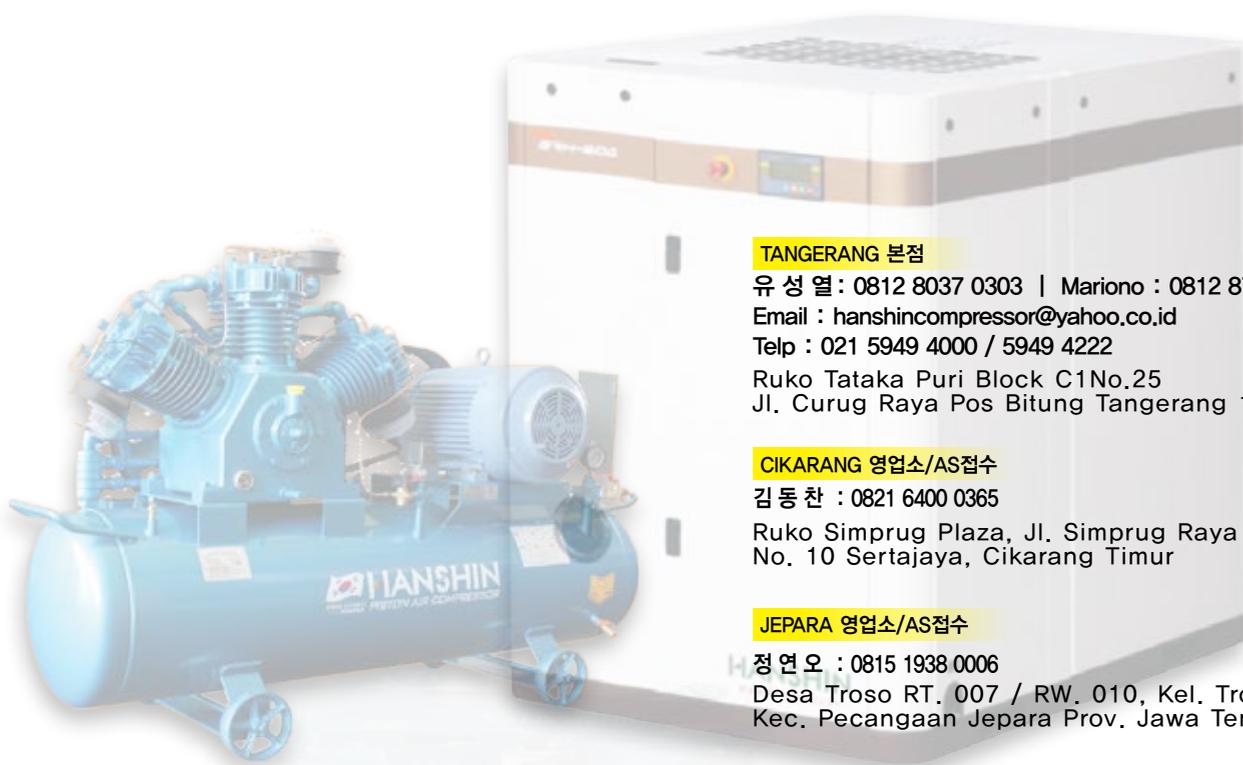
을 맞춘 개입이 더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분석을 비롯한 광범위한 글로벌 평가와 일치한다. 제레미 라르도 카스케일 히그 인덱스 수석 부사장은 “이 보고서는 탈탄소화에 지름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진정한 진전은 브랜드의 소싱 방식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제 달성을 위한 가치 사슬 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